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김 쳐장은 “재수강 기준이 약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재수강으로 인해 정작 들어야 할 중요한 전공과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공선택 과목은 수강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4학년은 안전하게 재수강을 선택해 학점을 높이기 예만 집중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현재 4학년의 재수강비율은 33%로 3명 중 1명이 재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쳐장은 “기업이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해 평가할 때, 전공지식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전공이수 여부가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취업 후 속속적인 근무 여부를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에서 우리학교 졸업생은 1분기에 91.8%, 2분기에 88%, 3분기에 83.8%, 4분기에 81.6%를 기록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18.4%가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대(87.5%), 연세대 (88.7%), 고려대(88.7%), 성균관대(88.5%), 한양대 (88.5%) 등 다른 주요 대학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취진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음 3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수강 제도의 기준 강화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대학 중 취업률 1위인 성균관대 같은 경우 C-이하의 과목에 대해서 4학기 이내에만 재수강이 가능하며,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B+로 제한하고 있다. 서강대와 고려대도 이와 비슷하게 재수강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취진처는 “재수강제도의 기준 강화가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 대학들은 60% 후반대의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재수강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국

외국어대(56.8%)와 서울시립대(59.4%) 그리고 건국대(53.1%)의 취업률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재수강제도가 취업률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취진처는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 전공이수학점 확대를 주장했다. 김 쳐장은 “우리학교의 전공 유형에는 단일전공과 다전공이 있지만 다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크지 않은 편이다”라며 “또한 인문학을 중시하는 학내 분위기가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 교양학점 비중이 큰 편이다”고 말했다. 취진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의 전공이수학점은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주요 대학 중 취업률 1위인 성균관대 경우 복수전공, 확장형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으로 전공이수학점을 높이고 있으며, 인문계 취업률은 전국 1위인 고려대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한양대는 전공을 다양화 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중국어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모든 학과가 저조한 취업률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응용화학과는 동일계열학과 주요 10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응용화학과의 다른 학과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학부연 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연구프로그램은 교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3학년 학부생들이 함께 1년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쳐장은 “학부연구프로그램이야말로 학생들이 해당분야에 대해 대학원생 수준의 넓고 깊은 통찰력을 체득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실습의 기회와 연구능력 배양은 자연스레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단과대학과 학과에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쳐장은 “이제 더 이상 취업률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주변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6,583원

아르바이트 시급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서울】 9월 28일 기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캠퍼스(서울캠) 주변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고용주들이 지급하는 평균 시급은 6,58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보다 553원 많은 액수다. 자료는 등록된 공고 회기동 243건, 이문동 136건, 휘경동 83건 중 학생신분으로 병행하기 어려운 풀타임 근무와 중복된 구인공고를 제외하고 총 126건을 추려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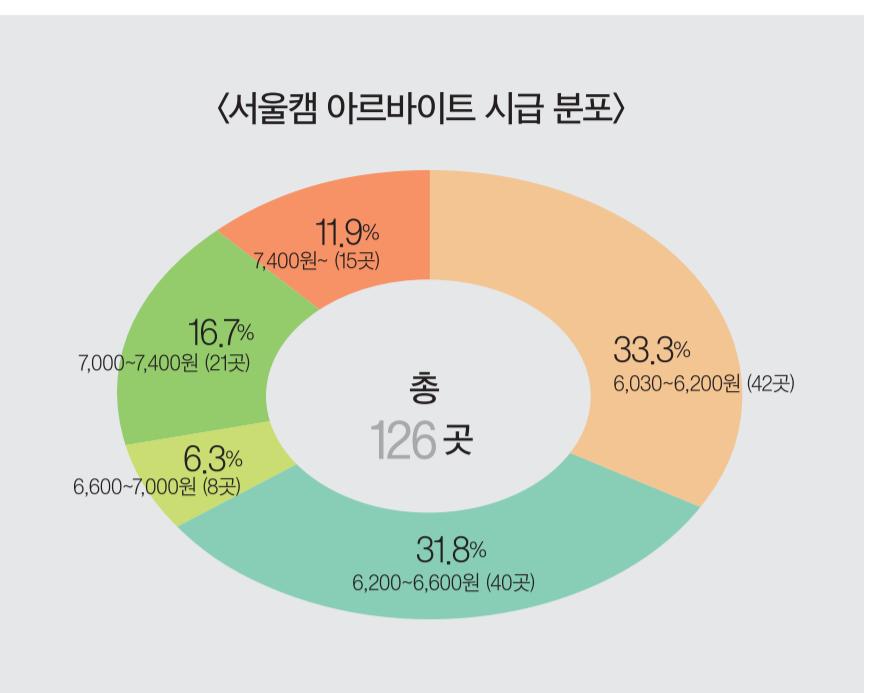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주거비, 생활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캠 주변 평균월세는 41.8만 원(관련기사 : 대학주보 1606호 8면)이고, 2015년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시행한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36만 6천 원이다. 주거비와 생활비 평균액수를 더하면 78만 4천 원인데, 이는 시급 6,583원을 받으며 119시간을 근무해야 충당할 수 있다. 학업이 본분인 학생들에게 월 119시간 근무는 지나치게 길다.

통상임금의 50% 더 받는

야간수당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용주들이 등록한 구인 홍보글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6,000원대의 시급을 지급한다고 공시하고 있었다. 공고에 적힌 시급을 분석한 결과, 126건 중 90건이 6,030원부터 6,800원을 지급한다고 게시했고, 그 중 약 절반인 42건이 시급 하한선인 6,030원이나 급여 지급의 편의성을 위해 약간의 액수를 올려 6,050원, 6,100원 등을 지급한다고 게재했다. 최저시급 수준의 업종은 음식점 서빙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가 10곳, 편의점이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 강도가 임금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이 낮은 임금 지급 업종에 대다수 포함됐다. 반면, 시급 8,000원 이상 고임금 아르바이트는 단 7건에 불과했는데, 전단지 배포, 경희 초등학교 급식 보조, 물류 운반 및 진열 등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실시간으로 수많은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고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야간수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 특히 영업시간이 늦게까지 이어지는 주류 취급 음식점에서 문제가 자주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가 야간근무에 낮 근무와 똑같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시급 6,030원에 법적 야간수당 50%를 가산하면 9,045원으로 시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현실은 야간시급을 약간 높게 책정한 곳을 살펴봐도 7,000원 수준에 그쳤다. 야간근무 시급을 제대로 지급한다고 공시한 업체는 이문동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포 단 한 곳이었다.

서울캠 주변 상권, 규모도

작을뿐더러 선택의 폭 좁다

한편, 우리학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 장학이란 교내·외 지정된 근무처에서 일을 하면, 급여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외부 아르바이트보다 노동 강도가 낮고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교내 근무 시 시급 8,000원, 방학 때 교외에서 근

무할 시 무려 시급 9,500원을 받는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25%에서 50% 이상 많은 액수다.

하지만 학교 측이 제공하는 근로장학 일자리는 우리학교 재학생 규모를 따져봤을 때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캠 주변 상권은 타 대학가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아 이마저도 선택의 폭이 적다.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이 등록된 대학가는 각각 3,858개, 3,848개가 등록된 건국대와 흥의대로 나타났다. 구인 공고 400여 개가 등록되어있는 우리학교와 약 10배에 가까운 차이다. 상권이 큰 건국대와 흥의대 주변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

생활비와 주거비, 등록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너무나도 많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한다면,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에 놓인다. 대학생은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수입을 얻기는 쉽지 않고, 지출할 항목은 많다. 학기 중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정 안내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정

구분	정원내	정원외 외국인	비고
원서 접수	2016. 10. 10.(월) 10:00 ~ 14(금) 17:00까지	2016. 10. 10.(월) 10:00 ~ 17(월) 17:00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업체 http://www.uwayapply.com
서류 제출	2016. 10. 10.(월) 10:00 ~ 17(월) 17:00까지	2016. 10. 10.(월) 10:00 ~ 18(화) 17:00까지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서류 접수 및 도착 확인	2016. 10. 10.(월) ~ 18(화) 17:00까지	2016. 10. 10.(월) ~ 20(목) 17:00까지	
전형일시	2016. 11. 5(토) 10:00	2016. 11. 12(토) 10:00	학과별 실시
합격자 발표	2016. 11. 24(목) 15:00 예정	2016. 11. 24(목) 15: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7. 1. 2(월) ~ 6(금) 16:00까지	2017. 1. 2(월) ~ 6(금) 16:00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분야	인원
국제통상법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00명 / 박사 00명

● 지원 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 국내거주자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 해외거주자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자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

● 전형일정

구분	기간
인터넷 접수	2016.10.17.(월) ~ 2016.11.10.(목) 24:00
지원서류 제출	2016.10.17.(월) ~ 2016.11.14.(월)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2016.11.26.(토) ※시간 개별 통보
해외 거주자 인터뷰	2016.11.21.(월) ~ 2016.11.25.(금) ※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16.12.5.(월)

●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후 지원 서류 제출
- * 자세한 내용은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sp.khu.ac.kr>)

● 서류 제출

- 우편접수 : [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영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집합부지 : 입학원서 재증' 계재 要]

● 다양한 칭찬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 학사교과 근무자 수업료 절액 면제 가능
- 기숙사 입사자 전원에 기숙사비 50% 지원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일부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 문의

- Tel : 031-201-2146~9
- E-mail : gsp@khu.ac.kr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017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tbl_r cells="2" ix="